

大勢 上昇 基調 살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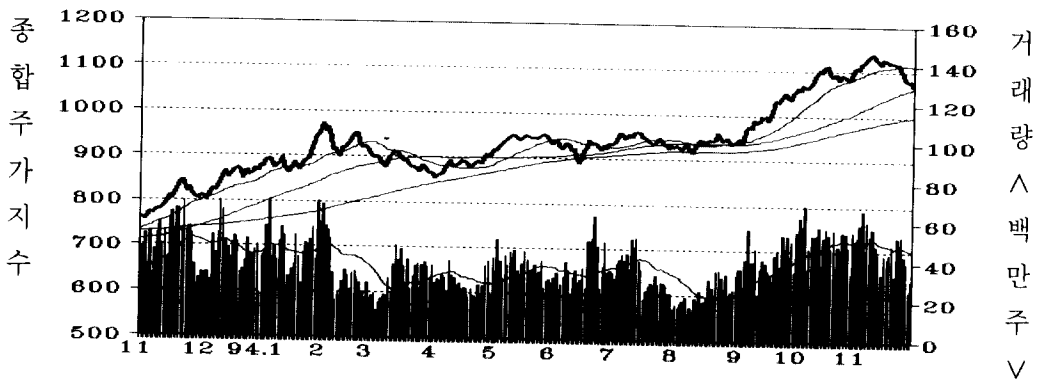
朴鍾坤*

큰 幅의 下 落 場 勢

11월 주식시장은 한국통신과 기업은행의 입찰에 시중 부동 자금이 대거 몰리고, 정부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종합주가지수가 11월 8일 1,138.75 포인트였던 것이 28일에는 1,069.48 포인트로 무려 6.1%나 하락했다. 특히, 그동안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핵심 우량주와 고가 저PER주의 하락이 두드러졌으며, 우량주 및 중가 우량주, 금융 등 전 업종에 걸쳐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優先株 下 落의 問題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우선주는 80년대 후반 대 주주의 지분율을 우려하던 기업에게 정부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한 수단으로 대거 발행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행된 우선주는 배당 수익률도 보통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실제 금리에 비해 낮고, 무배당시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되지도 않음에 따라 우선주가 갖는 어떠한 유리함도 가지고 있지 않다.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외국어대학 석사, 증권·금융 전공.

大勢 上昇 基調 아직 살아있다

11월 중순 이후 한국통신과 기업은행 입찰은 시중 자금 사정을 경색시켜 기관투자자들의 운신폭을 제한하였고, 그에 따른 핵심 블루칩 약세로 이어졌다. 또한 투자 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우위 등으로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향후 주가 향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보이고 있는 조정 양상이 얼마만큼의 폭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또한 과거 경험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연말, 연초 장세는 올 것인가 하는 우려감이 팽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調整場은 지수로서는 1,060 포인트, 기간으로는 12월 중순부터 다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아직 대세상승기조는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 및 금리 인상, 원貨 환율 상승 및 물가 상승 압력 등 다소 부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일단 국내 경기가 쾌속 향진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증시 내부적으로도 고객예탁금, 투신 주식형 펀드 수탁고 및 공모주 청약 자금 등 증시 주변자금이 꾸준히 늘고 있다. 따라서 2조 1천억 원이라는 기업은행 공모주 청약 자금이 돌아오는 12월 중순부터는 다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외국인 선호 종목을 주시하자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 발표 이후 고가 블루칩을 중심으로 꾸준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매도한 자금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본국에 송금했을 뿐 대부분의 자금은 한도 확대 후 주식 매수를 위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12월 이후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치중할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다.

최근 외국인들은 그동안 양호한 투자 수익을 올렸던 우량주 및 저PER주를 매도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시에도 이들 우량주 및 저PER주가 외국인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도 장외에서는 이들 종목들이 외국인들 사이에 프리미엄이 붙어 매매되는 것으로 볼 때 이들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은 아직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이들 종목이 최고치 대비 20% 이상 하락 조정한 것은 한도 확대시 외국인들의 매수를 부추길 충분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12월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우량주 및 저PER주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나머지는 실적주와 남북관련주 및 SOC 관련주, M&A 관련주 등에 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